



보도자료

배포 : 2015년 10월 139 (수)
문의처 :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02-765-9682
안산시 신길동 휴먼시아5단지 관리사무소
031-492-1103



안산에서 가을을 수놓을 문학콘서트 열린다

이상문학상과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김숨 소설가와 실력파 인디뮤지션 '씨 없는 수박 김대중' 등 출연, 청중과 함께하는 문학콘서트 열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는 <문학콘서트: 소외를 넘어서, 문학의 이름으로>는 상업주의 문학에서 벗어나 본격문학을 옹호하고자 설립된 (사)문학실험실에서 준비한 고감도 문학콘서트이다. 현재 한국문학의 가장 첨예한 전위에서 활동하는 시인, 소설가의 낭독회와 '뿌리 없는 삶, 노래하는 블루스맨'으로 알려진 실력과 인디뮤지션 김대중의 소규모 콘서트까지 더해지는 이번 공연은 문학에 관심이 있는 안산 시민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

□ 여는 공연과 닫는 공연에서 보여줄 김대중의 무대는 블루스 선율에 트로트를 접목시킨 몽환적이면서도 구슬픈 선율로 꾸며진다. <불효자는 똥이다>와 같은 그의 대표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음악은 힘든 삶을 거꾸로 뒤집어보며, 거기서 다시금 희망을 피워올린다. 이상문학상과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한 중견 소설가 김숨의 작품 낭독과 최규승, 최하연의 시 낭송에선 문학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맛볼 수 있다. 이들 작품의 공통된 특징은 '쉽게 써진 문장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다중의 의미를 담은 문장들이 어느새 우리 문화 전반에서 추방당하는 사이, 이들의 문학은 오히려 문학 본연의 문장으로 돌아가, 쉬운 소통을 선택하는 대신, 의미의 깊이와 다중성을 겨냥한다. 특히 파리8대학에서 유학한 문학평론가 윤경희의 미니 강연은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문학 강연이 될 전망이다.

□ 이번 문학콘서트는 2016년 11월 5일 오후 5시 안산시 신길동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 구현숙)에서 열리며, 무료 공연으로 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안산시 신길동 휴먼시아5단지 관리사무소 031-492-1103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02-765-9682

*첨부 <문학콘서트 팸플릿>

시민법인 문학실험실

문학콘서트
소외를 넘어서, 문학의 이름으로

2016. 11. 5 (일) 오후 5시
신길동 휴먼시아5단지 관리사무소

프로그램 소개

여기,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을 떠안습니다. 문은 하나 열면, 거기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문장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을 읽습니다.
살아 있다! 하고 울으면, 짐에 가져 가고 대담하고, 사랑하니까라고 울으면, 대담 대신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땅에서 새벽이 돌아옵니다. 여기,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COMPANY 단체소개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혼란한 문화 환경 속에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언어 탐구의 작업을 기획하고 실천해가는 작은 독립 문학 공간입니다.
www.silnum.or.kr

Artists | 출연진

윤경희

문학평론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파리8대학 비교문화학 석사과정 수료했다. 2008년 '중앙일보', '신문예를 통해 등단'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김숨

소설가. 1977년 용산에서 태어났다. 1997년의 '대장동'과 '신문예를 거쳐 1998년에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무진' 등 3편의 소설과 '기'의 운율화, '한 뭉치' 등의 장편소설을 펴냈고, <대한문학상> 등 3개의 문학상을 받았다.

최하연

시인.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3년 '문학과시론'에 '선명함으로 등단했다. 시집 '여아노', '떨개'를 펴냈다.

최규승

시인. 1968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2000년 '겨울이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시집 '무늬'와 '스페이스'가 각각 제1, 2회 문학상을 받았다.

씨 없는 수박 김대중

'뿌리 없는 삶, 노래하는 블루스맨' 2012년 '블루스' 앨범이면서 처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2013년 '한국대중음악상' 중재의 노래 후보까지 오른 김대중 인디뮤지션이다.